

## 제 103호 문제학생 다루기 3

지난 호에 이어 문제학생을 다루는 기본 기술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B. 해야하는 사항

(2)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은지 확실히 알린다.

문제행동이 강의실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이 여럿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허용하지 않을 행동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새시대 교수법 61호> 소개된 "수업 계약서 준비하기"와 <새시대교수법> 책 p.101에 소개된 "규칙 나열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교수님께서 "이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하고 지적하시면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 받아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오."라고 새로운 "규칙"을 그때그때 내세우시면 새로운 문제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니 학생이나 교수님이나 다들 지겨울 것입니다. 학생들 눈에는 교수님께서 신경이 예민하거나 성격이 까다로운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첫 수업시간에 미리 "발표"하셔야 예방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발표하신 뒤에는 후속조치가 꼭 뒤 따라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실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를 선언한 이후 휴대폰이 울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혈질이신 교수님이라면 "욱" 하면서 화가 나겠지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 학생을 야단치거나 휴대폰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오히려 강의의 흐름을 차단하고 강의실 분위기만 더욱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만약 교수님이 부처님 같으셔서 휴대폰 소리를 못들은 척하고 지나치시면 예방 조치가 그날로 무기력해지고 맙 것입니다.

문제행동이 벌어지면 교수님께서 문제학생을 보고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 연구실로 오라고 간단히 지시하십시오. 이때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강의를 계속하십시오. 아마 이 정도에 학생들이 전부 자신의 휴대폰이 꺼져있는가를 체크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제학생이 교수님 지시 따라 연구실로 찾아오면 꾸짖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학생과 함께 학습 성취도나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끝내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휴대폰 금지 사항을 상기시켜주십시오. 명령보다 부탁하는 말투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마 이 학생은 앞으로 강의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연구실을 찾아오지 않거나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이 있

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수 해야하는 불이익도 수업 첫 시간에 발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위반은 경고, 두 번째부터는 학점을 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둘 경우 문제행동과 학점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공학을 강의하는 경우, 문제행동 금지를 "프로"정신 (professionalism) 또는 공학도의 윤리관(engineering ethics)에 입각하여 위반 여부를 학점에 반영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새시대 교수법> p.98)

어느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에게 금지된 문제행동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의실 규칙에 따라 학생을 낙제시켰다는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난 이후에 문제행동이 그 교수님의 강의실에서는 깨끗이 사라진 예가 있습니다.

© 조벽, 2000